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 ◎ **당회:** 예배 후 7월 당회로 모입니다.
- ◎ **성경공부:** 후반기 기초 성경공부 개강합니다. 개강일시: 8월 8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5분 장소: 계수실 담당: 이태한 목사
- ◎ **기도회:** 화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5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5분 장소: 계수실 담당: 이성철 목사
- ◎ **교육:** 시티 카운슬에서 주관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한 추가 교육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유아실).
- ◎ **준비:**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기도와 연락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 밀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과 점심 식사를 준비한 주방봉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 ◎ **예고:** 8월 셋째 주일(8월 17일)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 ◎ **봉사활동:** 9월 중 학생들 방학 때 공동체별, 선교별로 봉사활동(Outreach,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떠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샅기도회 날입니다.

교우소식

- ◎ **등록:** 장미선 성도(이은서) 47 Oak Dr. Albany 021-172-8192 1 여선교회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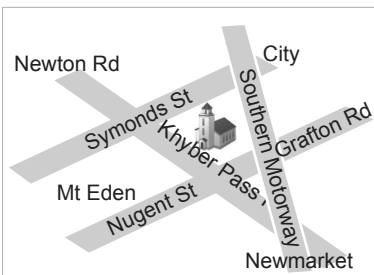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 예 배 | 시 간 | 장 소 |
|--------|-------------|--------|
| 주일1부예배 | 주일 PM 1:00 | 본당 |
| 청년모임 | 주일 PM 3:00 | Chapel |
| 수요예배 | 수요일 PM 7:30 | 본당 |
| 새벽기도 | 금요일 AM 5:50 | Chapel |
| 아동부 | 주일 PM 1:00 | Chapel |
| 중고등부 | 주일 PM 1:00 | 별관 |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7월 27일 주일 16권 30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Pray for Vanuatu

금년으로 4번째 맞는 바누아투 단기선교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태국과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은 있었지만 교회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선교는 처음이라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주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장 19- 20절)는 말씀의 실천이라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누아투로 출발하기 전 10 주간의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개강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선교는 성도들이 하여야 할 사명은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는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한 선교에 굳건한 마음을 품었으며, 특히 이번 단기 선교는 대흥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연합의 아름다움을 선교를 통해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클랜드에서 약 세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바누아투 땅은 정겹고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첫 사역장소는 작년 선교 팀에서 공연하였던 포트빌라의 재래시장으로, 준비한 찬양과 워십, 스킵 드라마공연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였으며 찬양 소리와 함께 삽시간에 시장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잘 통하지 않는 언어지만 찬양은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악기가 될수 있음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팀이 본격적으로 사역 할 삼마 지역은 바누아투의 수도인 포트빌라에서 차로 약 한 시간쯤 떨어진 곳으로 전기와 수도, 인터넷 시설등이 없는 척박한 작은 마을로, 자연에 순응하며 순박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난 수년간 갈보리교회에서 이곳에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잘 내려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하며, 아동사역, 청년 사역 등의 준비한 사역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장년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였습니다.

- 안쪽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선 교 보 고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역대상16:8-10
찬양대
다함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57. 시편 130편
사도신경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최광암 집사
요한복음 17:20-24절
나무십자가 찬양대
주여 하나로 뭉치게 하소서/안영로목사
말은이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순자 권사
요나서 4:5-7
초막을 짓고/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대흥교회와 연합

☉ 8월 교회악기

월샷기도회: 8월 1일(금)
전도주일: 8월 24일(주일)
선교회주관 수요예배: 8월 27일(수)
새가족 환영: 8월 30일(토)

☉ 8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김석목/김윤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임혜자 권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박병민 청년부장
8월 6일 수요: 김태만 집사
8월 6일 애찬: 강동호 집사
8월 10일 주일: 박제용 장로
8월 10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하고 성령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 2.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 되지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 3. 교회학교 교육에 힘과 정성을 기울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8월 새벽기도회 본문

1일: 마가복음 11:1-10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왕
8일: 마가복음 12:35-44 중심을 보시는 분께 전부를 드리십시오
15일: 마가복음 14:32-42 기도만큼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22일: 마가복음 15:33-41 죽음으로써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
29일: 디도서 2:9-15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 컬럼 앞에서 부터 시작

삼마교회 선임 장로의 인도로 마을 심방을 하고 가정들을 돌아보고,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삶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뉴질랜드의 풍요함과 좋은 환경에도 때로는 불평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큐티 시간에 전 대원이 숙연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힐링하시도록 중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하여 이 집사님, 목사님과 함께 오지 정탐을 위해 작은 쪽배를 임대하여 페레섬과 무나섬을 정탐하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선교할 곳이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페레섬에는 초등학생이 80명 정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곳 장로교 교회 성도인 교장선생님이 복음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초면임에도 우리에게 선교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으며 로마서 10:14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삼마지역 마을 잔치에 바누아투 간호학교(교장 김용환목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김선명 장로부부께서 일일 의료 사역으로 주민들을 섬겨주셨고, 현재 사역하시는 간호학교에 상황을 설명하며, 기숙사 시설의 필요성과 9월 말에 시작하는 기숙사 시설 공사에 돕는 손길을 요청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심 간구하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며, 모든 선교사역이 갈보리교회와 대흥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광희장로